

# 최정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친환경 공정개발 주력”

(포스코그룹 회장)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전략회의

최정우 회장 등 주요임원 20명 참석  
AI 플랫폼·그린철강 등 로드맵 논의  
“사업발굴·신기술 등에 2.7조 투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친환경 미래기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최 회장은 2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인 수소와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 속도를 높이고 신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포스코홀딩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래기술전략회의’에서 미래 소재와 기술 개발 전략을 강조하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등 비철강 사업



포스코홀딩스는 2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래기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포스코홀딩스

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최 회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은 2차전지 소재·수소와 함께 그룹을 이끄는 친환경 미래소재”라며 “나아가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저탄소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정창화 미래기술 연구원장 등 그룹사 주요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플랫폼 ▲친환경미래소재 ▲그린철강 ▲미래연구원 연구분야별 벤처투자·산학협력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논의에서는 생산현장 원료가격·자재구매가격 예측 및 생산성 향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주제가 다뤄졌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범용제품부터 고성능제품까지 관련 기술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저탄소 분야는 암모니아 수소 추출, 탄소포집 등 전략기술을 내재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기술이 미래 철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그린철강’ 세션에서는 탄소중립기술이 미래 철강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임을 재차 강조하고, 저탄소 조업기술, 단계적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연구원 연구분야별 벤처투자·산학협력’ 세션에서는 우수벤처 발굴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핵심 인재 확보와 R&D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룹 고유의 산학연인프라와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미래사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반기마다 미래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전략 방향을 점검한다.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미래사업 발굴과 신기술 확보를 위한 벤처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분야별 인재 육성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사업 성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볼보, 친환경차 분야서도 ‘안전 대명사’ 입증

C40 리차지, 유로엔캡 ‘5스타’ 획득  
美 IIHS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 선정

‘안전의 볼보’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친환경차 분야에서 글로벌 안전 리더십을 입증 받았다.

볼보는 설립 초기부터 ‘안전’을 강조하며 ‘10년을 넘게 타도 고장이 없는 차’로 주목받았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안전도 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으며 ‘볼보=안전한 차’라는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는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안전의 볼보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쿠페형 순수 전기 SUV인 C40 리차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의 최고 등급인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에 이어 유럽의 신차 평가 기관의 차량 안전 성능 평가인 유로엔캡(Euro NCAP)최고 등급인 5스타(Five-star)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동급 차량 중 가장 광범위한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C40 리차지는 탑승자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 사고 시나리오에서 운전자가 충돌을 감지하거나 피하고, 실수로 도로를 이탈했을 경우에도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볼보자동차 순수전기차 C40 리차지.

돕는 기술이다.

유로엔캡(Euro NCAP)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 성능에 대한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1997년 설립된 기관이다. 자동차 탑승자 또는 도로 위 보행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실제 사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안전 테스트를 진행,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5스타 안전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서 볼보자동차는 지난 4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 충돌안전 테스트에서 C40 리차지를 포함한 총 13개의 모델이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역대 최다 차량을 최고 등급에 올렸다.

이로써 볼보자동차는 일반 내연 기관 차량 뿐만 아니라, 전기차 또한 미국과 유럽의 가장 권위있는 차량 안전 검증 기관을 통해 그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독일 3개의 브랜드가 독식하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파일럿 어시스트, 충돌 회피 지원 등 최첨단 안전 기술의 전 라인업 기본 탑재와 적극적인 가격 정책, 실질적인 고객 혜택에 집중한 고객 서비스와 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속 선보이며 국내 고객들을 적극 공략 중이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전자-네이버클라우드 ‘이음5G’ 서비스 상용화 협력

네이버 제2사옥 ‘1784’서 서비스

삼성전자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국내 최초의 ‘이음5G(5G 특화망)’ 서비스를 위해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삼성전자와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이음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

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양사는 상용화 시점을 이달 중으로 잡고 있다. 이음5G가 상용화 될 경우 국내 첫 사례다.

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네트워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에 비해 통신 품질, 이동성, 확장성, 보안성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이번 이음5G 도입을 통해 1784는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들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양사는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5G 특화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허정윤 기자

## LG화학-캠코, ‘한국전구체주식회사’ 세운다

리사이클·전구체 합작법인 설립 계약  
울산 온산산단에 2000억 이상 투자

LG화학이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KE MCO)와 리사이클·전구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2일 LG화학은 지난달 31일 서울 논현동 고려아연 본사에서 캠코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이번 합작으로 LG화학은 리사이클 역량 확보와 함께 높은 품질의 황산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캠코는 국내 시장에서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며 배터리 소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연간 8만톤 규모의 황산니켈 생산능력을 통해 글로벌 탑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모회사인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핵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오른쪽) 캠코 최내현 대표가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화학

원재료를 추출해내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합작법인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다. 캠코와 LG화학 지분은 각각 51%, 49%로 이뤄진다. 양측은 울산 온산 산업단지에서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2만톤 이상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중간 원료다.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4000억원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LG전자, 차량 SW 평가 공신력 확보

TUV 라인란드서 공인시험기관 인정

LG전자는 자동차 소프트웨어(SW) 기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 CTO부문 산하에 있는 ‘SW 공인시험소’는 최근 ‘TUV 라인란드’로부터 자동차 SW의 기능 안전성이 국제 표준규격(ISO 26262-6)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공인시험기관(TUV Rheinland Appointed Lab.)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적 시험·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는 시험환경, 장비, 역량, 프로세스 등 다양한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시험기관을 지정한다. TUV 라인란드가 자동차 SW 기능안전(ISO 26262-6) 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건 LG

전자가 최초다.

LG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TUV 라인란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이어 추가로 TUV 라인란드에서도 ISO 26262-6 시험능력을 검증받았다.

LG전자 SW공인시험소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기·전자장치, 차량용 네트워크, 자율주행 등 폭넓은 영역의 전장 기술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품질과 기능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획득한 시험자격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SW 분야의 사업경쟁력과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허정윤 기자